

한반도에서의 활동 지역



한국 사무소



새와 생명의 터 BIRDS KOREA



한국 사무소



새와 생명의 터 BIRDS KOREA

한스 자이델 재단은 1967년에 설립된 독일 정치 재단으로서 기독교 사회당(CSU)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모토로 독일 및 해외에서 민주시민교육(정치 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개발협력분야에서 40년 가까이 활동해 온 한스 자이델 재단은 현재 전 세계 약 60개 국에서 100 여 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 중이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국제적 활동을 통해 기독교 및 사회적 가치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시장경제 체제의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지 프로젝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정치 자문과 교육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력 파트너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재단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한국 사무소 연락처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 (Dr. Bernhard Seliger)  
 Tel.: +82-2-790-5344~5  
 Fax: +82-2-790-5346  
 E-mail: info@hss.or.kr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13  
 수영빌딩 401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ss.or.kr](http://www.hss.or.kr)

## 한반도 접경지역 바닷새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와 새와 생명의 터  
 공동 연구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한스 자이델 재단은 2005년부터 한반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강원도 안변군에서 두루미 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부터 중국,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북한 나선특별시 선봉 철새보호지역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협력하여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화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활동**

**“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

한스 자이델 재단은 위의 모토를 바탕으로 전 세계 6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30년 이상 한반도에서의 화해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접경지역과 DMZ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특히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 편입과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동해 프로젝트**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의 목적으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NGO)인 새와 생명의 터(Birds Korea)와 함께 2014년부터 조류 조사와 인식 제고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인천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새와 생명의 터와 함께 나선특별시에서 조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북한 동해지역 삼일포에서 조류 조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국제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주요 바닷새 조사를 진행하였다.



**강원도 고성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이미 유명한 강원도 고성군의 해안지역은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와 새와 생명의 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바닷새 조사에 따르면, 바닷새를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지역에 해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닷새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태환경을 알려주는 생태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성군의 바닷새를 보호하는 일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생태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남과 북의 '녹색 외교'를 위한 훌륭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All Images © Birds Korea

**주요 연구결과**

- 고성군에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와 새와 생명의 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 ▶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에서 번식하거나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겨울을 나는 종을 포함한 바닷새 46종이 고성군에서 조사됨
  - ▶ 최소 64,000 마리의 바닷새가 관찰됨. 이는 조류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해안지역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치의 세 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 국제적으로 중요한 바닷새 중 6종이 관찰됨
  - ▶ 쇠가마우지(Pelagic Cormorant)를 포함한 최소 1종 이상의 바닷새가 겨울 동안 매일 비무장지대(DMZ)를 비행함

**미래**

남한의 경제성장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 환경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보전전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자연보호협력**

자연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국경을 알지 못한다. 수많은 철새들이 비무장지대를 비행하며 남북한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과거 적대적인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놓아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다양한 국제단체 및 정부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내부와 외국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세미나, 실질적 환경 조사 등을 통해 의사결정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